

## 오륙도 칼럼



임찬수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말에도 유행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 말 한마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그 경쟁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신의 스펙보다는 스피치가 능력을 뛰여넘는 시대가 되었다. 한 예로 취업 시 이력서 상으로는 스펙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묻어나는 말 한마디에 면접의 당락이 결정되고 스펙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이룬 예는 비근하다. 이처럼 대화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말을 잘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왜 잘한다고 느끼는 걸까. '생각을 정리해 조리 있게 말해서' 아니면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대화 시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 유도를 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을 능숙하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연출해 낸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상대가 말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화법의 묘수'

### 내 정보 먼저 공개하고 호기심 유발하면 대화는 술술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비법을 공개하겠다.

첫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질문할 때 먼저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다. 가령 처음 사

람을 만나서 나이를 물어본다면, "몇 살이세요?" 하기 보다는 "저는 34살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처럼 나의 정보를 먼저 노출시킨다. 마찬가지로 매일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김 대리 주말에 뭐했어?"라고 묻기보다는 "나 어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조깅했는데 진짜 좋더라고. 김 대리는 주말에 뭐했어?"처럼 나의 정보를 먼저 노출시킨다면 상대방이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적당하지 알기 쉬워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등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면 "등

산 좋아하세요?" 라고 식상하게 질문하기 보다는 "남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식으로 예뻐서 질문을 던진 뒤 "왜 저런 질문을 하지?"라며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시킨 뒤에 "남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등 근육, 복근 등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남자다움이 느껴지는데 그 하체가 좋아지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아내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제에 관심이 없는 상대방 할지라도 금방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말을 잘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방법을 알고 있다 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습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더라도 꾸준히 내 몸에 배는 습관으로 길들이지 못한다면 말을 잘하기는 어렵다. 웃도 유행이 있고, 노래도 유행이 있는 것처럼 말도 그 시대의 유행이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요즘 유행인 나를 먼저 오픈하고 우회적인 질문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를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보자!

## 신선대

&lt;242&gt;

채 규홍



## 쉽게 풀어쓴 생활법률

### ‘개 싸움’ 이 사람 싸움으로 비화

며칠 전 동부지원에서 필자가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이다.

식당의 진돗개를 단골손님이 운동 삼아 데리고 산책을 다녀온곤 했는데 이날도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섰다가 잠시 목줄을 풀 상태에서 역시 산책 나온 다른 소형개 미니핀을 몰았다. 전신마취수술과 계속된 치료로 엄청난 비용이 나오자 피해견 주인이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손님은 식당 인근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으로 치료비부담 능력이 없는데다 사람도 아닌 개의 수술비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식당주인도 손님이 개를 몰고 나가 사고를 일으켰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니핀 주인은 진돗개 주인과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반년 가까이 싸우던 사건이었다.

당사자를 모두 딱한 처지였다. 미니핀 주인은 중년의 여성 암환자이고 개를 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게다가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도 장사가 영 시원찮았다. 다들 자기 한몫 주스트르기에도 힘겨운 사람들인데 소송에 따른 비용, 법률출석, 상대에 대한 원랑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에게 냉정하게 법률상식을 알리려 필요가 있다. 개를 몰고 나가 미니핀을 몰게 한 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소형개라도 개의 속성상 다른 개와 마주치면

‘앙양’ 거러 물리기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미니핀 주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과실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진돗개 주인이다. 우리 민법 제 759조 제1항은 ‘동물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2014년 말에는 제2항에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고 개정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도 ‘동물점유자는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전제로, 필자가 결국 “이번 일은 반려견에 대한 사람이 지나쳐 일어난 커진 사건인데 개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물론 미니핀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며 한 발씩 양보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미니핀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치료비청구액을 크게 양보했고 식당주인도 그가 암환자인지 몰랐다면 책임 인정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인 역시 돈을 빌려 책임에 동참하겠다고 해 사건은 즉시 종결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에게 냉정하게 법률상식을 알리려 필요가 있다. 개를 몰고 나가 미니핀을 몰게 한 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소형개라도 개의 속성상 다른 개와 마주치면



김성수 법무사

##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칙 지킨 남구청 공무원에게 박수를

청렴과 친절은 공직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청렴과 친절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앞설 수는 없다.

작년에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다. 어느 민원인이 위임장이 필요한 자녀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방문한 모양이다. 그러나 자녀라 해도 성인이면 본인 위임장이 있어야만 되기에 담당 공무원은 “안타깝지만 규정상 위임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구비서류와 취지를 여러 번 설명 하며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민원인은 왜 원칙만 고수하냐며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짜증까지 냈다. 그 민원인은 원칙에 없는 재량과 편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공무원의 업무처리는 당연한 것이었다.

어거시 만약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서류를 발급했다면 부정과 부패가 끼여들 소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원칙이 버려진 채 재량의 여지가 어느 분야에서는 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재량권 내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끼여들고 금품이 오갈 수 있다. 시민들 스스로 작은 원칙부터 온전하게 지켜줄 때 비로소 청렴이 끼여들 구멍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이 중요하며,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만 청렴을 강요할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면 남구 행정의 수질은 ‘특1급수’가 될 것이다.

김기봉 (대연동)

### 독자의 청천편지

### 10년간 매달 보내온 떡 선물

문현동 지계골복지관이 건립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지계골복지관은 지난 2006년 6월 2일 개관식 때 남녀 어르신 200여분이 성대한 잔치를 갖는 등 그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 문현동 월드컵관 김형태 사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복지관 건립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나눠 드실 수 있게 10년간 매달 떡을 보내주고 있다. 이에 필자가 감사의 전화를 하니 “부모님 같은 분들께 떡을 해드리고 나니 사업이 더 잘 되가는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 이런 미담을 언론에 알리고 싶다고 하니 자신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10년의 고마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필자가 대신해 부산남구신문에 김형태 사장을 칭찬하고 싶어 글을 올린다. 최근 문현동에서 사업이 번창하여 대연동 조각공원 대로로 월드컵관 이전 개업을 하였다. 긍정적인 사장님의 성품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난 10년간 매달 따끈한 떡을 맛있게 드시는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전순임 (문현동)

### ■독자 투고

### ‘엄친아’와 ‘아친남’에 기죽지 말자

TV를 켜면 ‘엄친아’란 말이 나온다. ‘엄마 친구의 아들’의 줄임말이다. 키 크고, 돈 많고, 학력 좋고, 해외 유학에 영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 엄친아. 거기다가 엄친아의 부모는 대부분 대기업 간부, 대학 교수 혹은 의사이거나, 뭐 이런식으로 앞뒤가 뻔뻔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죽이는 세상이기도 하다.

요즘엔 ‘엄친아’의 또 다른 버전인 ‘아친남(아내 친구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아친남’ 역시 하나같이 돈도 잘 벌고 집안 일도 열심히 도와주며 기쁜일이면 아내를 감동시키는 이벤트도 잊지 않

는 완벽남들이다. 하지만 내가 여자라고 같이 살고 싶은 정도인 그런 아친남은 세상에 흔하지 않다.

그냥 마누라 잔소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친남’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열심히 일하는 아빠들, 모두 ‘엄친아’와 ‘아친남’에 기죽지 말자.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다. 사실을 알고 결코 기죽지 말자. 중요한 현재의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정답 아닐까. **강석훈 (대연동)**

### 독자의 시

### 친구!

진영대

눈이 슬퍼서

비가 되었나?

꼭 우수라서

비가 될 필요는 없었을까?

아무려면 이런 날은

친구한테서 전화라도 오면

좋은텐데

나도

외로움을 타는 나이가 되었나?

친구야!

하아난 목련이

봄비에 젖어 있거든

내 마음이 너를 보고 싶어

하는걸 알아라

### 이 기 대

이재림 (대연동)

南區名所二岐臺  
釜山山地公園也  
浮雲小橋散策路  
任辰倭亂侵略者  
水營城倭寇陷落  
海岸瀾光遊園地  
倭寇祝賀筵會場  
妓女二名倭將投

남구명소 이기대는 유서 깊은 곳 부산에 유일한 국가지정 공원일세 수공으로 만든 철책 목조계단 자연요술길로 해안길을 걸어보면은 산새와 수변이 아름다워서 옛 풍류객이 놀던 곳  
기녀 두명이 왜장을 앓고 바다에 투신하였네

南區名所二岐臺  
百尺高臺要塞地  
俱備俱備散策路  
景觀秀麗游嶽處  
妓女二名倭將投  
忠烈精神水垂芳  
海岸絕景天然自  
遊覽觀客諸保護

남구명소 이기대는 시민들의 휴식처요 백적 깎아지른 해안절벽은 요새지일세 수공으로 만든 철책 목조계단 자연요술길로 해안길을 걸어보면은 산새와 수변이 아름다워서 옛 풍류객이 놀던 곳  
기녀 두명이 왜장을 앓고 바다에 투신하였네  
자. 중요한 현재의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정답 아닐까. **강석훈 (대연동)**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lt;2016. 3. 24. 기준&gt;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부산창건축	문현동	건축현장 소장	1명	16. 03. 22 ~ 04. 05	월 250만원	051-642-0018
자산특수토건(주)	문현동	건설노무직	2명	16. 03. 22 ~ 05. 21	월 230만원	051-463-9365
레드로지스	문현동	경리사무원	1명	16. 03. 22 ~ 05. 21	월 132만원	051-555-5524
TM	감만동	무역사무원	1명	16. 03. 22 ~ 05. 21	연봉 1,800만원	051-314-1231
㈜오메가통신	문현동	배송, 관리직	O명	16. 03. 22 ~ 03. 29	연봉 2,000만원	051-631-4001
㈜디에스이	용당동	창고관리직	1명	16. 03. 21 ~ 04. 20	월 165만원	051-266-8811
㈜엠케이	용호동	전자제어 계속	1명	16. 03. 18 ~ 03. 31	연봉 3,200만원	051-610-7024
신원토건(주)	문현동	건축시공 기사	1명	16. 03. 18 ~ 04. 17	연봉 2,760만원	051-231-0422
㈜클스타	용당동	컨테이너 인출고	1명	16. 03. 21 ~ 04. 20	연봉 1,800만원	051-627-0850
천사재가 복지센터	대연동	재가요양 보호사	1명	16. 03. 22 ~ 04. 21	시급 7,275원	051-626-0067
		영상촬영 기기설치 보조기사	1명	16. 02. 18 ~ 02. 29	연봉 1,800만원	051-611-8040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 남구 문화캘린더

공연명	공연날짜	공연시간	공연장소 및 문의
제34회 부산연극제	4월 1일(금) ~ 10일(일)	홈페이지 참조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645-3759
백 - 부산	4월 5일(화) ~ 30일(토)	평일 20 : 00 토, 일, 공휴일 16 : 00	하늘바람소극장 504-2544
2016 에피토프로젝트 전국투어 소극장콘서트 이른 봄 <부산>	4월 9일(토) ~ 10일(일)	토요일 19 : 00 일요일 18 : 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홈페이지 참조)
부산네오윌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14일(목)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70-8899-7308
러브엑츄얼리 - 부산	4월 15일(금) ~ 5월 15일(일)	평일 20 : 00 토요일 15 : 00, 18 : 00 일요일 16 : 00	경성대 예노스극장 1600-0316
기획공연 고성현& OPERA STARS	4월 15일(금)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7-604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물, 깊은 거장들을 만나다"	4월 17일(일)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홈페이지 참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1 "시미노프스키"	4월 20일(수)	20 : 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7-6065
2016 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제월 페스티벌	4월 20일(수) ~ 22일(금)	11 : 00, 13 : 00 1일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티켓문의 607-3107 공연문의 607-3147
클래식 재즈를 품다	4월 22일(금)	19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7-6066
제25회 무지카비바 정기공연	4월 26일(화)	19 : 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10-2888-0292
미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4월 29일(금)	19 : 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070-8265-0776
이중현 일체드로임료	3월20(일) ~ 4월19(일) (화)	10 : 00 ~ 20 : 00	갤러리P & O 카페 611-1239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lt;비밀매물&g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발행일정은 신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